H-flux Gallery
hfluxgallery.com
@hflux_gallery

79, Jahamun-ro,
Jongno-gu, Seoul
03035, Korea

The Unseen

20 26
11.27
12.24

HYUN JI KANG
MI KYOUNG KIM
ROSIE PARK

서로를 이루는 세계

H-flux

79, jahamun-ro, Jongno-gu, Seoul 03035, Korea

Instagram@hflux_gallery

The Unseen 서로를 이루는 세계

KANG HYUN JI
KIM MI KYUNG
ROSIE PARK

11. 27 - 12. 24 2026

Press release

The Unseen - 서로를 이루는 세계

사물은 홀로 자신의 모습을 완성하지 않는다. 그것이 놓인 자리와 곁에 머무는 다른 것들, 주변을 둘러싼 빛과 시간에 따라 같은 사물도 조금씩 다른 모습과 의미를 갖는다. 익숙한 사물이 낯선 풍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고, 무심히 지나쳤던 빛과 그림자가 공간의 인상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 너머의 관계와 이야기가 함께 존재한다. 로지 박, 강현지, 김미경의 작업은 회화와 유리, 테라리움이라는 서로 다른 매체를 통해 사물과 주변의 관계를 보여준다. 로지 박은 서로 다른 장소와 기억에서 비롯된 사물들을 한 화면에 배치하고, 강현지는 빛이 유리를 통과하며 만들어내는 색과 그림자의 변화를 다룬다. 김미경은 흙과 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작은 생태계를 구성한다. 세 작가의 작업에서 대상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사물과 나란히 놓이고, 빛을 받아들이며, 주변의 조건과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익숙한 모습 너머의 의미를 드러낸다.

로지 박(Rosie Park)의 회화에는 일상에서 마주한 사물과 여러 도시를 오가며 만난 장면들이 함께 놓인다. 식물과 화분, 생활 도구와 장식적인 사물들은 작가의 경험과 기억, 상상을 거쳐 하나의 화면을 이룬다. 선명한 색채와 간결한 형태, 사물 사이의 간격은 각각의 대상에 존재감을 부여하면서 화면에 고유한 리듬을 만든다. 특히 사물들은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 따르기보다 각기 다른 방향과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표현되며, 서로 다른 관점들이 한 화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한다. 이처럼 화면은 특정한 장소를 재현하기보다 작가가 지나온 시간과 기억 속 사물들이 다시 만나는 공간에 가깝다. 익숙한 대상도 다른 사물과 나란히 놓이면 새로운 의미를 얻고, 무관해 보이던 것들은 뜻밖의 연결을 만들어낸다. 로지 박의 회화는 사물의 모습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시점과 기억이 교차하며 사물들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를 화면 안에 펼쳐 보인다.

강현지의 유리 작업에서는 빛과 물질이 만나 서로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드러난다.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색유리는 빛을 통과시키고 굴절시키며, 빛이 닿는 방향과 주변 환경에 따라 색과 깊이를 달리한다. 유리 아래로 드리워진 그림자에는 색이 번지고 겹쳐지며, 빛은 작품의 표면을 넘어 주변 공간까지 변화시킨다. 이때 그림자는 유리의 형태를 따라 생기는 흔적을 넘어 색과 빛, 공간이 만나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장면이 된다. 유리의 투명함 역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 안과 밖의 모습을 겹쳐 보이게 한다. 강현지의 작업에서 작품의 모습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빛의 방향과 주변 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유리와 공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낸다.

김미경의 테라리움은 제한된 공간 안에 형성되는 작은 생태계의 모습을 담고 있다. 흙과 돌, 이끼와 식물은 각자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서로에게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간다. 식물은 잎을 틔우고 줄기를 뻗으며, 이끼는 흙과 돌의 표면을 따라 조금씩 번져간다. 하나의 초록으로 보이던 풍경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생장 방식과 미세한 변화가 드러난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흙과 물이 필요하고, 이끼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빛과 습도라는 조건이 함께 작용한다. 테라리움은 자연의 일부를 작은 용기 안에 담아내지만, 그 안에서 이어지는 생장의 과정까지 정해진 형태로 고정하지는 않는다. 김미경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각기 다른 존재들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어가는 시간을 담아낸다. 작은 용기 안의 풍경은 축소된 자연의 재현을 넘어, 생명과 환경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세계가 된다.

겨울은 많은 것을 더하기보다 덜어내는 계절이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풍경의 색이 옅어지면, 가려져 있던 가지와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새롭게 눈에 들어온다. 11월의 끝에서 12월로 이어지는 이 계절에 만나는 초록과 빛은 그래서 더욱 각별하다. 잎이 떨어진 나무에도 생은 이어지고, 유리 안에서는 빛이 방향을 바꾸며, 작은 용기 안의 식물은 느린 속도로 자라난다. 겉으로 드러난 풍경이 달라지는 동안에도 사물과 생명은 저마다의 시간 속에서 주변과 관계를 맺으며 변화를 이어간다.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일은 특별한 대상을 찾아 나서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늘 곁에 있던 사물과 풍경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 달리하는 데서 시작된다. 서로 다른 사물이 한 화면에서 만나고, 빛이 유리를 통과해 공간에 새로운 색을 드리우며, 식물이 흙과 물 속에서 자라나는 모습은 대상의 의미가 그것을 둘러싼 관계와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겨울의 빈 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듯, 익숙한 것들 곁에 잠시 머물러 보는 일. 그동안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모습은 그렇게 사물과 주변 사이에서 서서히 드러난다.

글. 김선희

H-flux
79, jahamun-ro, Jongno-gu, Seoul 03035, Korea
Instagram@hflux_gallery

The Unseen 서로를 이루는 세계

KANG HYUN JI
KIM MI KYUNG
ROSIE PARK

11. 27 - 12. 24 2026

Artist Statement

작업노트, 강현지

유리를 자르고 녹여서 유리오브제를 만듭니다. 이것이 물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리에 빛이 스미는 순간을 감각합니다.
유리와 빛과 공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매번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 냅니다.
가만히 그저 앉아 빛을 바라보면 가장 익숙한 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빛을 바라보는 순간은 “지금,여기”의 나를 환기시키며 내면을 고요히 바라보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빛명상의 시간은 “지금 너로 충분하다.” 라는 긍정의 마음과 충만함을 줍니다.
가만히 바라보며 머무름 덕분에 알아차리게 되고 현존 現存하게 되며,
나를 다정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날개가 돋습니다.
매일 다른 인사를 건네는 유리의 빛에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곁에 있어주어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며 한 해의 고마움을 전하고,
다시 시작될 한 해를 서로 응원할 수 있는 마음을 담아 유리에 녹였습니다.
마음에 날개를 선물합니다.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작업노트, 김미경

작은 세계가 또 다른 세계와 만나는 순간,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간다.
바위에 기대어 자라거나 흙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며, 아주 작은 틈새에서도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낸다.
내 작업은 특정한 장소에서 시작된다. 그곳의 돌과 흙, 식물을 작품 안으로 들여와 작은 풍경을 빚어낸다.
단순히 자연의 모습을 옮겨 담는 것을 넘어, 한 공간이 품고 있는 시간의 결을 기록하고 싶기 때문이다.
언제나 시작은 이끼다.
화려하지도, 자신을 요란하게 드러내지도 않지만, 낮게 엎드려 묵묵히 생명을 이어가는 작은 존재.
돌 위에 내려앉은 이끼를 마주할 때면, 그곳에 머물러 온 오랜 시간의 무게와 생명의 온기가 전해진다.
테라리움은 서로 다른 생명들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계다.
그 안의 모든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미세한 변화가 다른 존재에게 스며들고,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이 모여 단단한 균형을 이룬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닮아 있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시간, 스쳐 지나온 장소와 기억들이 겹겹이 쌓여 지금의 나를 이루듯 말이다.
이 작은 세계 안에 담긴 생명의 흔적이 관람객의 마음에 닿아, 저마다의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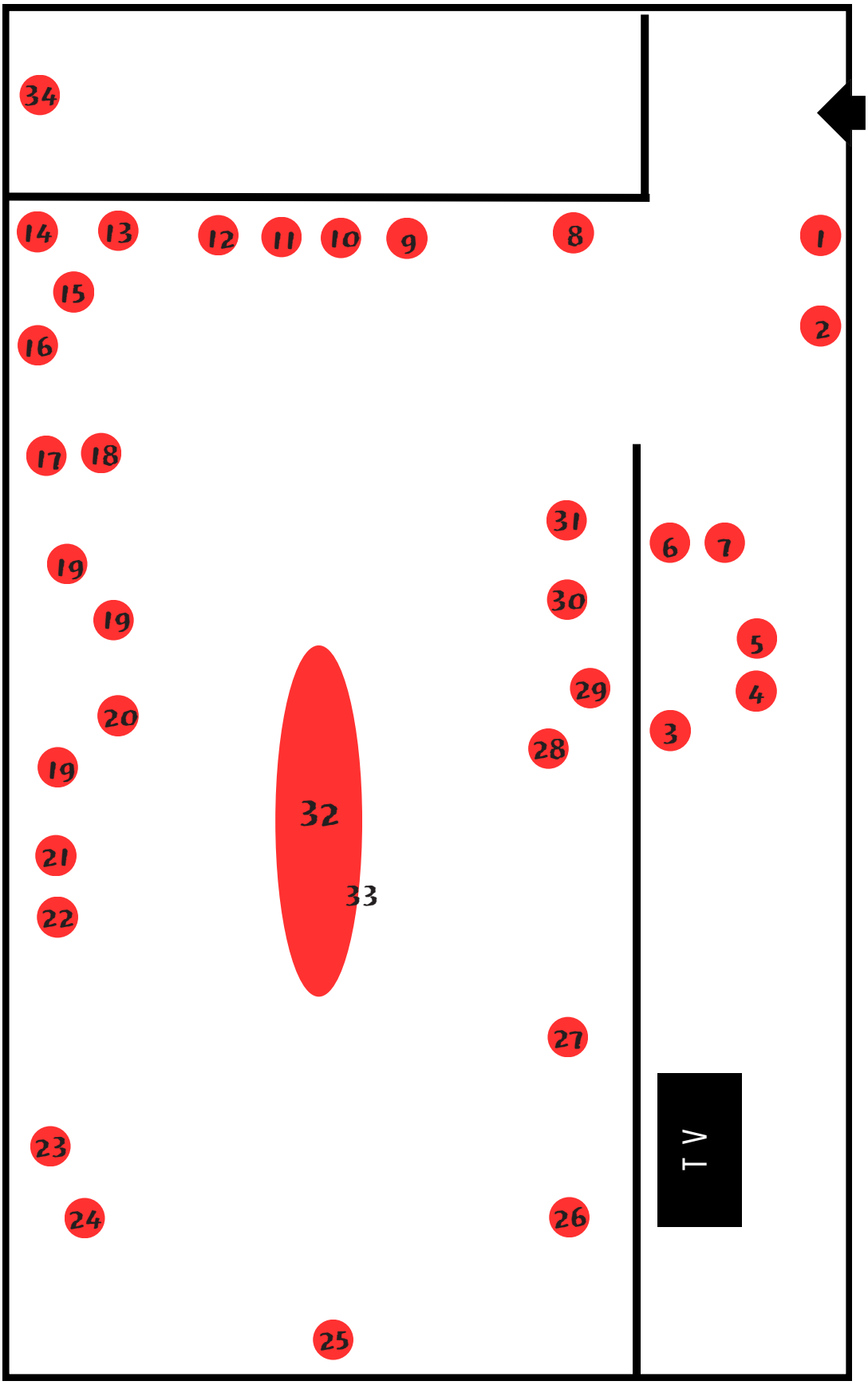
작업노트, 로지 박

무엇이든 오래, 다정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담긴 기억과 이야기가 조용히 들려오기 시작한다.
일상에서 마주한 이러한 순간들은 자연스럽게 작업으로 이어진다. 사물에 깃든 개인의 기억과 이야기,
타인의 삶과 역사에서 비롯된 생각과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더해지는 나의 경험과 상상까지.
하나의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은 때로 지나온 시간으로, 때로는 아직 만나지 않은 장면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서로 다른 시간과 이야기들이 사물 곁에 포개지고, 하나의 화면 안에서 함께 머문다. 서로 다른
사물들이 각자의 모습을 간직한 채 어우러지는 순간, 나는 그 안에서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내가 바라본 것들을 오래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기
도 하다. 때로는 붓질과 색에 마음을 온전히 빼앗겨나 자신조차 잊고, 때로는 작업의 시간 속에서 가장
솔직한 내면의 나를 마주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소중한 순간들을 더 자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작업
을 계속 이어간다. 익숙한 것과 새롭고 다양한 것들이 한 화면 안에서 만나고,각자의 모습을 잃지 않은
채 서로에게 스며드는 순간을 오래 바라보며, 나 역시 그 안에서 가장 나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

The Unseen 서로를 이루는 세계

KANG HYUN JI
KIM MI KYUNG
ROSIE PARK

11. 27 - 12. 24 2026



H-flux
79, jahamun-ro, Jongno-gu, Seoul 03035, Korea
Instagram@hflux_gallery

The Unseen 서로를 이루는 세계

KANG HYUN JI
KIM MI KYUNG
ROSIE PARK

11. 27 - 12. 24 2026

1. 김미경 / 세겹의 시간1, 쥐꼬리 이끼,들덩굴초롱이끼,돌(털깃털이끼, 고깔바위이끼) 애기석창포 야쿠시마 바위취 좀넝쿨고사리 바이오소일 커스텀소일, 14X13cm, 2026
2. 강현지 / wish, glass, fusing, 23.5x19x0.6cm, 2026
3. 로지 박 / Pour Me a Story , 아르쉬지위에 혼합재료, 60.6x72.7cm(20), 2026
4. 김미경 / 세겹의 시간4, 들덩굴초롱이끼돌(고깔바위이끼, 털깃털이끼) 아기속새 후마타고사리 바이오소일 커스텀소일, 18X19cm(손잡이 제외), 2026
5. 강현지 / with, glass, fusing, 7x7x0.6cm, 2026
6. 강현지 / 절기의 빛 대서, fusing , pigment print, 42x30cm, 2026
7. 강현지 / 절기의 빛, fusing , pigment print, 42x30cm, 2026
8. 로지 박 / Planter in Mind - Where Greens Reside, 아르쉬지위에 혼합재료, 91x73cm(30) , 2026
9. 김미경 / 세겹의 시간10, 돌(검정고깔이끼, 가는흰털이끼) 에버잼고사리 바이오소일 화산사, 12X17cm, 2026
10. 김미경 / 세겹의 시간6 , 돌(고깔바위이끼) 콩짜개덩굴 삼색바위취 통영봉의꼬리 애기석창포 색모래 바이오소일,커스텀소일 화산사, 15X20cm, 2026
11. 김미경 / 세겹의 시간3, 들덩굴초롱이끼돌(고깔바위이끼, 가는흰털이끼) 펠리오니아 리펜스 후마타고사리 바이오소일 커스텀소일 15X18cm, 2026
12. 김미경 / 세겹의 시간8, 돌(고깔바위이끼) 콩짜개덩굴 넉줄고사리 색모래 바이오소일 커스텀소일 화산사, 112X20cm, 2026
13. 18. 강현지 / wing, glass, fusing, 10x13.5x0.6cm, 2026
14. 김미경 / 세겹의 시간2, 쥐꼬리이끼 들덩굴초롱이끼 돌(고갈바위이끼, 가는흰털이끼) 형광스킨답서스 애기석창포 펠리오니아 리펜스 바이오소일 커스텀소일, 15X23cm, 2026
15. 김미경 / 세겹의 시간9, 돌(검정고깔이끼, 가는흰털이끼) 무늬아이비 바이오소일 화산사, 2026
16. 김미경 / 세겹의 시간7, 들덩굴초롱이끼 돌(고깔바위이끼, 털깃털이끼) 뱀톱 콩짜개덜굴 필리아페페 에버잼고사리 색모래 바이오소일, 커스텀소일 화산사, 20X30cm, 2026
17. 강현지 / with, glass, fusing, 7x7x0.6cm, 2025
19. 강현지 / wing, glass, fusing, 4x8.5x0.6cm, 2026
20. 강현지 / wise, glass, fusing , 12X9cm,2026
21. 강현지 / wind, glass, fusing, 14x10x0.6cm, 2025
22. 강현지 / well, glass, fusing, 10.5x10.5x0.6cm, 2026
23. 로지 박 / Similar and Different , 아르쉬지위에 혼합재료, 80.3x53cm (25), 2026
24. 김미경 / 세겹의 시간5, 돌(고깔바위이끼, 털깃털이끼) 개부처손 야쿠시마바위취 좀넝쿨고사리 바이오소일,커스텀소일 화산사, 20X10cm, 2026
25. 로지 박 / Collector's Shelves (Triptych), 아르쉬지위에 혼합재료, 100x 241cm, 2025
26. 로지 박 / Orbit of Déjà vu, 아르쉬지위에 혼합재료, 72.7x 60.6cm(20), 2026
27. 강현지 / whisper, glass, fusing, 7x11x0.6cm, 2026
28. 강현지 / wink, glass, fusing, 10x10x0.6cm, 2026
29. 강현지 / wit, glass, fusing, 9X7x0.6cm, 2026
30. 강현지 / will, glass, fusing, 23x17x3cm, 2026
31. 로지 박 / Objects of Thought II, 아르쉬지위에 과슈와 아크릴, 72.7 x 53cm (20), 2024
32. 김미경 / 고요의 시간, 들덩굴초롱이끼 쥐꼬리이끼돌(고깔바위이끼,털깃털이끼) 애기석창포 애기속새 부처손 개부처손 참나무, 174x70cm, 2026
33. 강현지 / wish etc, glass, fusing, 6x9x0.6, 2026
34. 로지 박 / Scene di Vita in Italia #2 - Tomato Museum, 아르쉬지위에 혼합재료, 72.7x53cm(20), 2026